

“인간 편의 아닌 동물이 행복한 축산 돼야”

전국 첫 ‘동물복지 양돈농장’ 선정 ‘강산이야기’ 강민구 대표

사육 밀도 낮추고 가축 습성에 맞춘 환경 조성 2008년부터 백화점 납품 ... 일본 수출도 준비 “고급화로 전남을 친환경 축산의 중심 만들자”

“가족에게 주고 싶은 건강한 먹거리를 만들겠다는 각오로 양돈농장에 아들 이름인 ‘강산’을 붙여 ‘강산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동물복지 양돈농장은 일반 시설에 비해 비용도 많이 들고 유지하는 게 힘들지만 행복하게 자란 동물이 인간에게 유익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동물복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근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인증하는 동물복지 양돈농장 1호로 선정된 ‘강산이야기’ 강민구(37) 대표. 그는 인증을 축하하는 지인들의 전화와 인터뷰 때문에 바쁜 날을 보면서도 양돈농장을 처음 시작할 때 마음 자세를 잃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

세계동물보건기구는 동물복지에 대해 ‘동물이 건강하고 안락한 상황에서 본래의 습성을 표현할 수 있고, 고통·두려움을 받지 않는 것’으로 정의했다. 정부 역시 동

물복지 축산에 대한 국제적 흐름에 맞춰 지난 2012년부터 동물복지 축산인증제를 시행중이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동물복지 양돈농장 인증을 받은 강산이야기는 비좁은 철제 우리 안에 돼지를 밀집 사육하지 않는다. 인간의 편의를 위해 송곳니와 꼬리를 제거 해버리는 과정보다 생애주기 전체를 고려한 사육환경을 조성했다. 송곳니와 꼬리를 제거하고 있다.

강 대표는 생명을 가진 동물을 상품으로만 여기는 세대를 안타까워했다. 그래서 돼지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을 갖춰 주려 힘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일반 양돈농장은 26㎡(8평)에서 27㎡까지 키우고 있으나 그의 양돈농장에

서는 15마리만 사육한다. 또한 땅을 파기 좋아하는 돼지의 습성에 맞춰 바닥에 톱밥을 충분히 깔아준다. 그는 분뇨를 신속하게 치워주고, 톱밥으로 안락한 공간을 마련해주면 돼지들이 스트레스를 적게 받기 때문에 송곳니와 꼬리를 자를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강산이야기 돼지들은 위생적이고 충분한 사육공간에서 자유롭게 움직인다. 덕분에 강 대표의 아들 강산 군에게도 양돈농장은 더럽고 냄새나는 곳이 아니라 즐거운 놀이터가 됐다.

해남군 황산면 송호리와 일신리 농장에서 어미돼지와 새끼돼지 등 2900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는 그는 원래 유통업에 종사했었다. 그가 양돈업에 뛰어들어 준 계기는 지난 2007년 한 양돈농장을 방문하면서다.

“제가 납품하는 돼지고기가 어떤 환경에서 자라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축사를 찾았다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평생 움직이지도 못한 채 출산만 하는 어미돼지, 햇빛도 보지 못한 채 분뇨 위에서 도축될 날을 기다리는 돼지들을 보며 과연 안전하게 먹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날 이후 제 인생이 송두리째 달라졌습니다.”

강 대표는 이때부터 ‘우리 가족이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고기’를 목표로 다양한 사육환경을 연구했지만 생산성이 낮은 동

물복지 돼지농장은 국내에 전례가 없었다. 하지만 유럽 등 축산업선진국에서는 이미 동물복지 산업이 각광받고 있었다. 그는 눈앞의 이익을 추구하는 대신 ‘차별화’를 선택했다. 이러한 노력이 인정받아 지난 2008년부터 백화점에 제품을 납품하고 있으며 최근 또 다른 백화점과 논의를 진행 중이다. 또한 먹거리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일본으로 가공 소시지와 햄을 수출할 준비를 하고 있다.

강 대표는 대규모 자본을 가진 이들이 축산업에 뛰어든다는 것은 양돈농가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은 고급화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더 많은 양돈농가가 동물복지 사육에 동참해 전남도를 친환경 축산의 중심지로 만들고 싶다고 포부를 나타냈다.

“강산이야기는 같은 규모 양돈농장에 비해 매달 1500만원 이상 더 소요됩니다. 하지만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은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소비자들에게 생산과정을 보여줄 수 있는 양돈농장이 경쟁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가족에게 주고 싶은 먹거리라는 목표를 잊지 않고 앞으로 행복한 돼지, 믿을 수 있는 고기를 만들고 싶습니다.” /해남=박희석기자 dia@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효성, ‘사랑의 쌀’ 나눔 행사

본사 있는 마포구 500가구에

효성이 26일 본사가 있는 서울 마포구의 이웃을 위해 ‘사랑의 쌀’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사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포구 이웃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마련된 이번 행사에서 효성은 가구당 20kg씩 총 500포대를

를 전달했다. 효성은 2006년부터 ‘사랑의 쌀’을 전달하며 마포구 인근 이웃 500가구와 온정을 이어가고 있다.

장영호 효성나눔봉사단장(부사장)은 “기업은 이윤추구뿐만 아니라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더불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데 일조해야 하는 책임도 갖고 있다”며 “입장인들의 정성으로 모인 기금이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효성은 ‘사랑의 쌀’ 나눔 활동 이외에도 취약 계층을 돕는 기금 조성을 위한 ‘희망나눔 페스티벌’을 3년째 후원 중이며 정년실업 극복을 위한 ‘청년드림 마포캠프’를 운영하고 있다. /임동훈기자 exian@kwangju.co.kr

“장소 불문 사전투표, 유권자 적극 참여를”

정영택 광주시선관위 사무처장 “세계 투표역사 새 지평”

“기존 부재자 투표는 사전에 부재자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사전투표는 신고 없이 전국 어느 단위에서나 투표가 가능하기 때문에 유권자 투표 참여 기회가 더 많이 보장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영택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은 27일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사전투표는 유권자의 투표편의를 획기적으로 높인 제도이면서도 지금까지 시행된 투표제도 중 가장 유권자 친화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처장은 “우리나라 선거사에 기록될 투표의 새역사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창조되는 것”이라며 “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개월 동안 여러 차례의 시험운영을 거쳐 유권자에게 최고의 편리한 투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투표장소도 구·시·군마다 설치되던 것과 달리 읍·면·동마다 설치해 사전투표 장소가 8배 가량 늘었다”면서 “특히 집 뿐만 아니라 근무지·출장지·여행지 등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곳에서 쉽게 투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 처장은 또 “전국 단위 사전투표는 높은 수준의 기술력이 뒷받침되어



야 하고, 사전투표소 관리에 대한 자신이 있어야 시행 가능한 제도”라며 “우리나라 투표시스템에 대해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사전 투표라는 새역사를 쓰는 것은 결국 나라의 주인의 유권자의 몫”이라며 “광주는 민주도시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 만큼 광주의 명예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가 펼쳐지길”고 당부했다. /최원열기자 cki@kwangju.co.kr



관공비 전액 조합원 자녀 장학금으로

윤중해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의장 1200만원 상당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윤중해 의장이 지난 2월 취임 이후 관공비를 한 푼도 쓰지 않고 전액 조합원 자녀들의 장학금으로 내놓아 따뜻한 감동을 주고 있다.

윤 의장은 취임 직후 연 1200만원 상당의 의장 관공비를 장학금으로 내놓기로 약속, ‘장학금 지급 규칙’을 제정했다. 장학금은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학업성적이 우수한 조합원 자녀들에게 지급된다.

광주본부는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총 24명에게 5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올 상반기는 노동절에 맞춰 지난달 30일 전달했다.

이는 지난 1월 한국노총 광주본부 전직 간부들이 회계서류를 조작해 보조금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 검찰 수사를 받는 등

불투명한 예산집행으로 각종 의혹을 불러온데 따른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윤 의장은 혁신적이고 합리적인 노조 운영을 위해 상근직원을 1명으로 줄이는 등 조직 슬림화를 단행했다. 아울러 특별위원을 구성해 ‘조직운영정밀 및 선거관리규칙’을 정비, 민주적이고 투명한 조직 운영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윤 의장은 “관공비는 의장 개인의 찜진 돈이 아니다.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학업성적이 우수한 조합원 자녀들에게 장학금으로 돌려주려고 한다”면서 “이를 계기로 예산과 조직 운영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집행해 조합원과 시민들에게 사랑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47 FAX 062-222-4938. 222-4918

화축

▲이윤수·김영래씨 장남 종평(KJ광주 삼근)군 이은석(삼성화재 대리점 대표)·최광희씨 장녀 승희(서구 정보화 마을)양 = 31일(토) 낮 12시 농성동성당 062-366-7004.

▲장중순(자영업)·최영숙씨 장남 원준군 오일록(해남군 해남읍 재무담당)·김미라씨 장녀 정연양=6월 1일(일) 오후 1시 서울 여의도동 사이닝스톤 노빙컨벤션 02-784-0000.

동창회

▲송원고 총동문회(회장 황명성) 열린 음악회=6월 3일(화) 오후 7시 송원대학교 학생회관 대강당 062-384=7447.

향우회

▲재광 곡성 향우회(회장 김채정)=6월 1일(일) 오후 6시 30분 예술영양돌솥밥

알림

▲신용사회 만들기 시민연합 채무상담 =채무로 고통받는 사람과 신용불량자들의 신용회복을 위해 채무상담(무료) 매주 월~금 오후 5시 062-226-9001~2.

▲홀트아동복지회 국내입양 가정 = “입양은 가슴으로 낳은 사랑입니다” 입양을 통하여 행복한 가정을 원하시는 분들께 도움을 드립니다.(24시간 상담가능) 홀트아동복지회 광주지부 062-227-8877.

▲무로자선봉사=장애인 등 불우이웃을 위한 연말연시 위로행사용으로 음향장비(엘프 등) 무상대여. 접수 후 가능여부 결정 010-7274-4321.

▲대한사회복지회 우리집=미혼부모 상담 및 미혼모자가가족복지시설 입소 안내, 학생미혼모 단기위탁교육 기관으로 학력 인정, 무료의료지원 및 속식보호 062-232-1313.

▲광주장애인인권센터 무료 상담=장애를 이유로 인권침해나 차별을 당한 장애인 상담 및 지원 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062-369-0420(1577-5364).

▲습관성도박자 및 가족대상 전문상담 치료 및 병원위탁 무료 치료=성요한병원(6개월 무료입원 및 통원치료) 상담시간 월~토(오전 10시~오후 8시까지) 062-527-3400, 3403.

▲지적장애인 성인 주·야간보호 서비스 실시=월~금 오후 5시~9시 사랑모아 주간보호센터 062-385-0422.

▲사회복지법인 수완실버빌 노인종합복지센터=65세 이상 요양등급판정 1~2등급 인정받은 자. 기초생활서비스·의료서비스·재활서비스, 여가, 사회, 주·야간보호. 062-959-2340.

모집

▲팔콘문화 아카데미(원장 조대호)=만화기초수업 초등학생부·중학생부·고등학생부·일반부·취미반 수시모집(원장

남 1: 1개인지도, 남구 방림동 샘신허 3거리 070-4065-5054, 010-8947-3006.

▲광주향교·성균관유도회 광주광역시본부=우리민족 전통문화 계승발전을 위하여 유원활동에 관심있는 분 환영. 062-672-7410, 7008.

▲2014년 시민 학생 인문교과(수신제 가치국편천하)=과목은 논어(論語) 대학(大學), 시간은 매주 토요일 오후 3~5시 광주 YMCA 2층 울안(국민 누구나 수강가능) 010-3625-5433.

▲광주불교교육원 2014년도 불교문화대학 신입생=교육대상은 불교를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싶은 분(1년 과정), 강의 시간은 주간 매주 화요일 오후 2시~4시·야간 매주 화요일 오후 7시~9시·월 1회 불교문화 현장학습 실시 062-228-9098.

▲광주동구정신건강증진센터 자원봉사자=음악(악기)에 재능이 있는 자원봉사자 모집, 최소 6개월, 주 1회 2시간 가능 하신 분 062-233-0468.

▲‘함께 안아요! 함께 키워요! 가정위탁’ 위탁부모=부모의 사랑, 이혼, 실직, 가출, 학대 등으로 친부모와 함께 살 수 없

는 아이들을 일정기간 위탁하여 보호할 수 있는 위탁부모를 모집 어린이재단 광주가정위탁 062-351-1206.

▲광주여성하모닉스합창단(지휘 이준)단원=클래식음악을 좋아하는 광주지역 거주 여성, 매주 월·목요일 오후 2~4시 광주문화예술회관내 시립소년소녀합창단실 016-604-1918(회장), 010-4416-9883(총무).

부음

▲박정례씨 별세 최중관·석호씨 모친 상=발인 28일(수) 무등장례식장 202호 062-515-4488.

▲박춘천씨 별세 문필(금호건설)·경호·정호(동부증권)·순희씨 부친상=발인 28일(수)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제1분향소 062-231-8901.

謹 故人의冥福을 받습니다 弔	
101호 故차정씨 남(남/75세) 子/子婦: 차정민, 정호/이영순 女/婿: 차민준, 차민준/김정희, 정미/이선영 • 호 실: 101호 • 발 인: 5월 28일 • 장 지: 영락공원 • 연락처: 227-4385	102호 故주영씨 남(남/88세) 子/子婦: 주영호/김미란, 원호 女/婿: 주영숙/김종식, 영미/이선영 • 호 실: 102호 • 발 인: 5월 29일 • 장 지: 영락공원 • 연락처: 227-4386
201호 故안순씨 남(남/95세) 子/子婦: 이이삼/박선화 女/婿: 이상삼, 차련/김영남 孫: 이 용, 재윤, 최갑수, 윤일현 • 호 실: 201호 • 발 인: 5월 29일 • 장 지: 보성미력 선영 • 연락처: 227-4381	401호 故전금자씨 남(남/92세) 子/子婦: 이문경/김복래 女/婿: 이복숙/임영웅 孫: 이철우, 진영, 성훈, 임원영, 원우, 지은 • 호 실: 401호 • 발 인: 5월 28일 • 장 지: 담양 대천 선영 • 연락처: 227-4383
402호 故엄인진 남(남/76세) 子/子婦: 엄영택/최순미, 영택/박영숙 女/婿: 엄미담/최경현, 미숙/이종민 • 호 실: 402호 • 발 인: 5월 28일 • 장 지: 영락공원 • 연락처: 227-4314	
孝 金호장례식장 http://www.mykumho.com	
문의 (062)227-4000	